

기업 및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국제표준화

- 시민·사회단체, 공공기관도 사회적 책임 의무 준수해야...-

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국제표준(ISO 26000) 제정에 대응하여, 산업, 노동·환경, 시민단체, 언론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SR(Social Responsibility) 표준화 포럼이 출범됨

사회적 책임(Social Responsibility)이란 조직체의 활동과정에서 뇌물수수 금지와 회계투명성 등 윤리 경영, 환경 및 인권 보호, 사회공헌 등의 가치를 제고시켜,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, 더 나아가 인류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조직체의 책무

□ 08년 초 제정될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(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)은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,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대해 검증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

○ 사회적 책임은 윤리경영, 인권 및 환경보호에 대한 조직의 책무로, ISO 26000은 SR 전략수립, 조직운영, 이해관계자 대응 및 홍보 등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경영 지침 및 보고서 기준을 제시

○ ISO 26000은 투자와 상업적 거래 등을 지원하거나 정부규제 완화정책의 일환, 시민단체와 투자자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, SR 이슈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경영도구로 활용 가능

○ ISO는 ISO 소비자정책위원회(COPOLCO)의 결의(01)를 계기로 하여, ISO의 최고결기기구인 146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ISO 총회(02)의 의결로 ISO SR 표준화 추진을 개시

※ 05.1 일본이 제안한 신규작업안에 대한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

□ 05.3. 제1차 TMB(기술관리이사회) 작업반 회의를 브라질에서 개최하여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/추진체계를 확정

* 43개 회원국 및 24개 국제기구 대표 총 250명(우리나라 5명)이 참가하여 ISO 작업반 회의규모면에서 사상 최대 참가를 기록하는 등 관심집중

□ SR 표준화포럼은 민간중심 자율협의체로 ISO SR 국제표준화에 대한 미터 대응조직으로 국내외견수렴 및 대응안을 마련하는 역할

○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, 환경·노동단체, 시민단체 등 각계 조직이 회원으로,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ISO 회의 등 국제표준화 과정에 참여하고,

○ 연1회 총회를 개최하고, 하부조직으로 표준화, 기업윤리, 환경노동, 모범기업 등 4개 분과위원회에 각 10명 내외 전문가가 참여

□ 창립식에 참석한 정부, 경제, 노동, 소비자, 환경, 언론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은, 기업을 포함한 사회

모든 조직이 윤리경영, 투명성 보장, 환경 및 인권 보호, 부정부패 척결,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인식하고,

○ 사회적 책임의 구현방법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개발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서명하였음

□ 출범사에서 포럼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호 유한대 학장(전 산자부 장관)은 사회적 책임 경영이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하고, 사회각계의 표준화 포럼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,

○ 사회적 책임 이행은 조직의 생존조건으로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함

□ ISO 중앙사무국의 Mike Smith는 기조연설에서 ISO의 SR 표준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,

○ SR 개념과 원칙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며, SR 표준은 연기금 투자시 기업평가 등 사회 각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피력함

□ 산업자원부 이희범장관은 축사를 통해 SR 표준화 포럼 출범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,

○ SR 표준이 기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의 경영도구로 활용되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반성장을 이루기 바란다고 강조함

□ 한국무역협회 김재철회장은 환영사를 통해, SR 표준화 포럼을 계기로 광범위한 기업운동, 사회운

동,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,

○ IT 기술발달과 글로벌화로 범지구적 상호관계가 심화되어, 기업은 생존을 위해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함

□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은 환영사에서 SR 국제표준을 적극 환영하며,

○ 우리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절대선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위협에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지향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.

□ 창립식에 이어 국제세미나에서 SR 표준화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

○ ISO에 SR 신규작업을 제안한 Hiroo Wakai 일본의 표준협회 이사는 일본 경단련 중심의 일본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소개하고, SR 경영 실천과 이해관계자 대응의 중요성을 피력함

○ 유한김벌리 김종열이사, 한노총 김종각 본부장, 환경연합 황상규 사무처장, 소시모 문은숙 기획실장, 에코프론티어 정해봉 대표가 각각 산업계, 노동계, 환경계, 소비자, 컨설팅계 입장 및 대응을 제시함

□ 표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또는 중소기업 등에 부적합한 표준이 제정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전문가 참여와 대응활동이 필요함

○ SR 국제표준이 미묘한 지역적, 조직적 차이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조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과정 참여가 필수적임